

북한 문헌분류표 <분류-검색어사전>의 특징 분석

A Study on the Features of the <Classification-Search Term Dictionary>, the Library Classification Scheme in North Korea

최재황 (Jae-Hwang Choi)*

< 목 차 >

I. 서론	IV. <분류-검색어사전>의 구성과 원리
II. 북한 문헌분류표의 변천	V. 결론
III. <분류-검색어사전>의 류문	

요약: 북한은 2000년 2권 8책의 <분류-검색어사전>을 개발하여 발표하였고, 이 문헌분류표는 북한 전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 이후 북한도서관의 문헌분류표 발전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2000년에 발표되고 2014년에 개정된 <분류-검색어사전>의 내용, 구성, 원리를 파악해 보는 데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문헌분류표에 대한 연구는 1964년 북한에서 발표된 <도서분류표>에 대한 논의가 전부이며, 이후 북한의 문헌분류표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분류-검색어사전(2000)>의 제1권은 '분류기호-검색어', 제2권은 '검색어-분류기호'로 구성된다. 제1권은 1996년에 발표된 <도서 및 서지 분류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다섯 부문에 걸쳐 총 41개의 류문으로 전개된다. 혁명사상과 이론에 1개(11/19) 류문, '자연과학'에 8개(20~27), '공학기술 및 응용과학'에 가장 많은 19개(30~60/69), '사회과학' 부문에 12개(70~85), 그리고 '총류'에 1개(90)의 류문을 배정하고 있다. 제2권은 주제명표목표와 유사하다. 북한의 <분류-검색어사전>은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문헌분류표이며, 본 연구는 향후 남북간 표준 통일분류표 제정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북한, 도서관 분류체계, 주제명 표목표

ABSTRACT: In 2000, North Korea developed and published a two-volume, <Classification-Search Term Dictionary> and is currently used throughout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classification schemes of the North Korea after liberation and to understand the contents, composition, and principles of the <Classification-Search Term Dictionary> published in 2000 and revised in 2014. Until now, all the studies of the North Korean classification schemes were studies on the <Book Classification Scheme> published in North Korea in 1964, and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n North Korea's classification schemes since then. The first volume of the <Classification-Search Term Dictionary> consists of 'classification symbols - search terms', and the second volume consists of 'search terms - classification symbols'. Volume 1 is based on the <Books and Bibliography Classification Scheme (1996)>, and there are a total of 41 main classes in five categories. Volume 1 allocates 1 main class (11/19) to 'revolutionary ideas and theories', 8 main classes (20~27) to 'natural sciences', 19 main classes (30~69) to 'engineering technology and applied sciences', 12 main classes (70~85) to 'social sciences', and 1 main class (90) to 'total sciences'. Volume 2 is similar to subject-headings. North Korea's <Classification-Search Term Dictionary> is the first classification scheme introduced in South Korea and is expected to be the starting point for future studie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unification classification schemes.

KEYWORDS: North Korea, Library Classification Schemes, Subject Headings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choi@knu.ac.kr / ISNI 0000 0004 6002 3415)

- 논문접수: 2022년 11월 21일
- 최초심사: 2022년 11월 29일
- 게재확정: 2022년 12월 12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4), 123-142, 2022. <http://dx.doi.org/10.16981/kliss.53.4.202212.123>

* Copyright © 2022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남한의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도서관 역시 수집되는 모든 문헌들은 문헌분류표에 의해 분류된다. 북한에서 문헌분류표는 “문헌을 분류하기 위한 체계와 순서, 방법을 밝혀놓은 일람표 형태의 규범집”이며, “문헌을 분류하기 위한 구분단계들과 그 순서, 분류과정에 대한 각종 규범과 규칙들을 규정해 놓은 표”이다(최영희, 2017b, 62).

북한에서 도서를 분류한다는 것은 “도서관에서 장서를 잘 보관 관리하고 독자들에게 효과 있게 리용[이용]시키기 위하여 책들을 그 내용에 따라 과학지식 부문별로 갈라놓는 것”을 말한다(박철 2016, 20). 북한에서 도서분류는 모든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기본 업무의 하나이며 도서 정리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업무인 것이다.

북한에서 책을 분류하는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서가에 책들을 과학지식 부문별로 질서정연하게 배열[배열] 보관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분류목록을 만들어 독자들에게 책을 과학지식 부문별로 소개하기 위한 것”이며, 셋째, “도서관 장서의 구성과 리용 정형[情形, 상황]을 과학지식 부문별로 통계 장악하고 분석하여 장서를 합리적으로 꾸리고 열람 대출 사업을 개선해 나가기 위함”이다(박철 2016, 20). 북한의 모든 도서관은 국가에서 지정해준 문헌분류표를 이용하여 도서를 분류한다. 그리고 남한의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문헌분류 업무는 도서관의 문헌정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도서관 업무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된다.

2000년 북한은 문헌분류표 <분류-검색어사전>을 완성하였고, 이 분류표는 2014년에 개정되었으며, 현재 북한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 이후 북한도서관의 문헌분류표 발전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문헌분류표 <분류-검색어사전(2000)>의 구성과 원리를 분석해 보는 데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문헌분류표에 대한 연구는 도, 시, 군(구역) 도서관용(군중도서관용) <도서분류표(1964)>를 대상으로 남태우(2000), 강미정(2001), 강성운(2006년)이 수행한 연구가 전부이다.

2. 선행 연구

남태우(2000)와 강미정(2001)은 북한의 국립중앙도서관이 1964년에 발표한 시, 도, 군(구역) 도서관용(군중도서관용) <도서분류표>를 대상으로 분류의 원칙, 학문의 분류, 기호법의 원칙과 보조 기호법들을 탐구하고 <도서분류표(1964)>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이 두 연구는 북한의 문헌

분류표를 남한에 처음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강성운(2006)은 분단 이후 북한의 여러 학문분야에서 연구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학문분류체계를 파악하였고, 이때 북한의 <도서분류표(1964)>를 사회과학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한 바 있다.

3. 연구의 방법 및 한계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이다. 본 연구를 위해 검토된 북한의 문헌은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의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의 『과학도서관통보』, 과학기술출판사의 『정보과학』, 그리고 도서관운영방법연구소의 『도서관일군 참고자료』 등이다. 이 자료들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다.

위의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의 경우 2004년(50권 3호)에서 2019년(65권 2호)까지를, 『과학도서관자료통보』는 4년분(2015, 2016, 2017, 2018)을, 그리고 『정보과학』의 경우는 2005년 3호(루계15호)부터 2019년 4호(루계74호)까지의 잡지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보유하고 있다. 『도서관일군 참고자료』는 전문 학술잡지는 아니지만, 도서관과 관련된 명언 해설, 경험 및 소개 기사, 방법 자료, 소논문, 실무 자료, 사진, 정보학 강좌, 역사자료, 상식, 용어해설, 위인과 일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관일군 참고자료』 대부분의 기사는 1~3쪽 분량이고, 기사의 저자는 미상인 경우도 많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이 잡지를 2016년에서 2017년까지를 CD-ROM 형태로 소장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2019년 이후 북한의 자료들이 북한의 국경봉쇄 정책으로 인해 입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문헌분류표 <분류-검색어사전>의 실물 확인을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이를 입수하는 데는 결국 실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분류표 <분류-검색어사전(2000, 2014)>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에서 간행된 기사 및 연구논문의 2차 문헌 내용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4. 문헌분류표 관련 북한 용어의 의미

- 건명표: 건명표목표(件名表目標), 주제명표목표, subject headings
- 실마리어: 키워드, 검색어. [예시] “분류기호에 대응하는 실마리어 모임에는 표준실마리어[표준 검색어, 우선어]와 자유실마리어[비표준검색어, 비우선어]”가 있다(리철호, 오세일, 2007, 18)
- 올림말: 표목, heading
- 외연: 개념의 적용범위. 즉, 주어진 개념에 반영되는 대상들의 포괄범위(신순희, 2017, 23)

- 조선도서목록: 북한에서 발행된 도서, 잡지, 정기간행물 등의 출판물에 대해 분류자모순으로 배열한 목록. 1945년부터 1960년까지 발행된 출판물을 한 책으로 묶어서 편집하였고, 1961년부터 5년에 한 책씩 발행하고 있다. 서명, 부제목, 저자명,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수 등 서지사항과 판형, 발행 부수, 분류 기호를 기입하고 있다(『도서관일군 참고자료』 2017(4), 12).

II. 북한 문헌분류표의 변천

해방 이후 북한은 1949년에 시, 군 도서관용 <도서분류표>를 발표하였고, 1953년~1961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분류표>, 교육성이 <도서분류표>, 김일성종합대학과학도서관이 <문헌분류표>를 간행하였다. 도, 시, 군(구역) 도서관용(군중도서관용) <도서분류표>는 1964년에 소개되었고, 1975년에는 <도서 및 서지분류표>, <도서분류표> 두 개의 문헌분류표가 동시에 출판되었다. 현재 북한의 모든 도서관은 2000년에 발표된 <분류-검색어사전>을 통해 수집된 문헌들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 분류표는 2014년 11월에 개정되었다.

1. 시, 군 도서관용 <도서분류표(1949)>

해방 이후 북한도서관에서는 지난 시기의 문헌분류 체계와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과학적인 문헌분류표 작성과 도입 문제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해방 이후 북한의 문헌 분류체계는 자본주의 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인식되어 새 사회건설을 위한 북한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고 북한식의 새로운 문헌분류표가 각지에서 요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도서관은 과거의 분류표를 골격으로 하고, 다른 나라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목문까지로 구성된 십진분류표를 만들어 1949년에 시, 군 도서관용으로 발표하였다. 이것이 해방 이후 북한이 만든 첫 문헌분류표이다. 이 분류표는 혁명적인 내용을 담은 책, 진보적인 책을 분류하기 위한 항목들이 설정되어 있고, 과학기술도서들을 분류하기 위한 항목들을 세분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박철, 2016, 20-21).

2. <국립중앙도서관 분류표>, 교육성 <도서분류표>,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문헌분류표> (1953~1961)

1949년에 발표된 <도서분류표>는 전반적인 류문 구성에서 관념론적인 과학분류 체계의 잔재가 남아있고, 적지 않은 분류항목들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새 사회건설을 위한 북한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에서는 문헌분류표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시, 군 도서관용 <도서분류표(1949)>를 수정한 <국립중앙도서관 분류표>, 교육성 <도서분류표>가 새로 소개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에서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학부와 학과목의 구성 체계에 따라 류문들을 새롭게 설정하여 <문헌분류표>를 발표하였다(박철, 2016, 21).

위 세 분류표가 정확히 몇 년에 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949년 9월에 목문까지 구성된 첫 십진분류표를 만들어 내놓은 이후 1953년, 1958년, 1961년, 1964년, 1975년, 1986년, 1989년, 1996년에 개작된 분류표”(최영희, 2017a, 61)를 발표하였다는 기록으로 유추해 보면 위 세 분류체계는 1953년~1961년 사이에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3. 도, 시, 군(구역) 도서관용 <도서분류표(1964)>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시기 북한도서관에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서분류법의 제정, 자모순기호표의 완성, 전국적인 도서연합목록의 편찬, 새로운 통일분류표에 의한 도서관 장서의 완전분류 실시, 도서목록 체계의 완비, 도서정리 공정의 기계화 등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었다(박철, 2016, 21).

먼저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서 분류방법이 제시되었다. 북한은 새로운 도서 분류의 방법 연구를 위하여 통일분류법 작성위원회를 조직하고 연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1960년 9월에 새 도서분류표 초안을 만들었다. 통일분류법 작성위원회는 논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1964년에 도, 시, 군(구역) 도서관용(군중도서관용)으로 된 새 분류표를 만들어 발표하였다(남태우, 2000, 73; 박철, 2016, 21).

1964년 북한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표된 <도서분류표>는 북한에서 표준 분류표로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문헌분류표이며(남태우, 2000, 72) 국내에서는 군중도서관용 도서분류표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분류표의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분류표는 도, 시, 군(구역) 도서관용으로 작성되었다. 분류표의 기본 류문들은 문화성 통일분류법 작성위원회에서 토의, 채택되었고, 강, 목, 세목문들은 해당 과학연구기관들과 전문 일군들의 방조[협조]하에 국립중앙도서관, 과학원 도서관,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 김책공업대학도서관, 평양의학대학도서관 일군들이 작성하였으며, 최종초안은 문화성 도서관 학술위원회가 비준하였다”(강성운, 2006, 10; 국립중앙도서관, 1964, 2; 남태우, 2000, 73).

<도서분류표(1964)>는 “류문 배열과 그 체계에 있어서는 맑스-레닌주의적 과학 분류원칙과 분류체계에 립각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의 제 성과를 반영하며 전반적인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수행을 촉진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총 류문은 43개로 배정 전개하였고 그중 사회과학부문은

10개 류문으로 구분하고, 사회 발전 법칙에 관한 과학들로부터 시작하여 사상 및 사회적 의식에 관한 과학들의 순위”로 배열하고 있다(강성윤, 2006, 10; 국립중앙도서관, 1964, 187). 북한에서 1964년에 발표된 <도서분류표>는 혁명사상과 이론부문, 자연과학부문, 응용과학부문, 사회과학부문, 총류부문의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참조).

4. <도서 및 서지분류표(1975)>와 <도서분류표(1975)>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제시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 있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북한 사회에 당의 영도체계를 세우고 도서관사업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는 보다 완성된 도서분류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 시기 새로 작성된 분류표는 두 가지로 편찬되었는데 하나는 과학도서관용 <도서 및 서지 분류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 군, 구역 도서관용 <도서분류표>이다. 이 두 개의 분류표는 모두 1975년에 발행되었다(박철, 2016, 22).

이 분류표들은 당 문헌부문, 자연과학부문, 응용과학부문, 사회과학부문, 총류부문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이전의 <도서분류표(1964)>와 그 구성에 있어 차이가 없다. 1975년에 발표된 두 분류표는 “류문배열과 그 체계에서 김일성의 로작을 비롯한 당 문헌과 혁명전통 도서를 첫 자리에 놓고 그다음 자연과학, 응용과학, 사회과학의 순서로 배열하였는데 이것은 학문의 연구대상에 따라 낮은 운동 형태로부터 높은 운동 형태로,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자연 현상으로부터 사회적 현상으로의 논리적[논리적] 순차에 따른 주체적인 과학분류 원칙에 기초”(박철, 2016, 22)하고 있다.

1975년에 발표된 두 분류표의 구성 원리는 첫째, “주체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우리나라[북한] 것을 먼저 주고 다음에 다른 나라에 대한 것을 주는 원칙에서 우리[북한]의 것을 더 상세히 전개하고 여러 곳에 반복 반영” 하였다. 둘째,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원칙에서 공통구분기호와 지리보조기호, 관계보조기호와 전문분석기호들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전개식분류체계와 10진 분류체계의 우점[장점]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계단식 구성원리를 적용”(박철, 2016, 22) 하였다. 이후 북한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도서분류표를 수정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었고 그 결과 1986년, 1989년, 1996년에 개정된 분류표를 발표하였다(최영희, 2017a, 61).

5. <분류-검색어사전(2000, 2014)>

북한은 <도서 및 서지분류표(1996)>와 다양한 검색어 사전을 결합하여 2000년에 <분류-검색어사전>을 발표하였다. <분류-검색어사전>이 발표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문헌검색에서 지난 시기에 리용하던 분류표를 리용하면 학문검색에서는 유리하지만 학문체계를 벗어난 검색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 반대로 검색어 사전을 리용하면 학문검색은 불리하지만 학문체계를 벗어난 검색은 유리한 측면이 있다. 분류표와 검색어 사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반되는 부족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분류표와 검색어 사전을 서로 결합하여 색인과 검색에 동시에 리용할 수 있는 통합사전을 만들어보려는 시도는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박철, 2016, 23; 최영희, 2016, 18).

2000년에 발표된 <분류-검색어사전>의 분류항목은 약 43,000개이고 검색어는 150,000개 정도이며, 그중 표준검색어(표준실마리어)는 94,000개, 비표준검색어(자유실마리어)는 10,000개, 표준검색어 결합은 46,000개이며 지금까지 북한에서 나온 문헌분류표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박철, 2016, 23; 최영희, 2016, 18; 2017b, 62). <분류-검색어사전>은 십진 분류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분류체계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기호 편집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분류-검색어사전>은 2014년 11월 14일 갱신되었다. 안혜영(2016)의 연구에서는 <분류-검색어사전>의 갱신된 일부분(자연과학부문과 응용과학부문)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연과학 부문은 2000년 발표 당시와 동일하였지만 응용과학 부문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류문 분류기호(1준위)에서 /(사전)이 사라졌고, 경공업(40/43), 50/55(농업과학), 60/69(의학) 분야가 세분되었다. 그 외 혁명사상부문, 사회과학부문, 총류부문은 안혜영의 연구(2016)에서 언급이 없어 갱신된 변화내용은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문헌(도서) 분류체계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 꾸준히 수정, 변화,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표 1>은 1964년에 발표된 <도서분류표>의 43개 류문과 2000년에 발표된 <분류-검색어사전>의 41개 류문을 서로 비교한 것이다. 류문에서 사선(/)은 해당 과학지식 부문이 분류기호 내에서 차지하는 범위를 나타낸다.

<표 1> 북한의 <도서분류표(1964)>와 <분류-검색어사전(2000)> 비교

5개 부문	<도서분류표(1964)>* 기본 류문(1준위) 43개	<분류-검색어사전(2000)>** 기본 류문(1준위) 41개
혁명사상과 리론	11/15 맑스-레닌주의, 김일성 동지의 저작 21/23 맑스-레닌의 당, 조선 로동당	11/19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자연과학	30 자연과학 총기 31 수학 32 력학 33 물리학 34 화학 35 천문학 36 지질, 지리과학 37 생물학	20 자연과학총론 21 수학 22 력학 23 물리학 24 화학 25 천문학 26 지구과학(지질, 지리) 27 생물과학

5개 부문	〈도서분류표(1964)〉* 기본 류문(1준위) 43개	〈분류-검색어사전(2000)〉** 기본 류문(1준위) 41개
공업기술 및 응용과학	40 응용과학 총기 41 공업, 공학 총기 42 동력 및 전기공업, 동력 및 전기공학 43 전자 및 자동차 공업, 전자 및 자동차 공학 44 광업, 광업 공학 45 금속 공업, 금속 공학 46 기계 공업, 기계 공학 47/48 화학 공업, 화학 공학 49 립업, 목재 가공 공업 51 방직 공업, 방직 공학 53 일용품 생산, 기타 경공업 54 인쇄 및 사진 기술 공학 55 수산업, 수렵업 56 건설, 건설 공학 57 운수, 운수 공학 60 농업, 농업과학 총기 61/62 농산 63 과수 원립 64 산림업, 산림학 65/66 축산, 수의 67/69 보건 의학	30 공업기술 31 컴퓨터, 자동화기술 32 에너르기공학 33 전자공학, 통신공학 34 광업, 광업공업 35 금속공업, 금속공학 36 기계공업, 기계공학 37 화학공업, 화학공학 38 원유, 천연가스공업 39 병기공업 40/43 경공업 44 인쇄 및 촬영기술 45 수산업 46 건설과학 47 운수, 운수공학 48 항공, 우주비행공학 50/55 농업, 농업과학 57 산림학, 립업 60/69 의학
사회과학	70 사회 과학 총기 71 력사, 력사과학 72 경제, 경제 과학 73 사회 정치 생활 74 국가와 법, 법률 과학 75 군사, 군사과학 80/82 문화, 과학, 교육 과학 83/84 언어학 문학 작품 85/87 예술, 예술 과학 89 철학, 철학 과학, 심리학, 종교, 무신론	70 사회과학총기, 철학 71 력사, 력사과학 72 경제 73 정치 74 법 75 군사 80 문화, 문화건설 81 과학, 교육, 출판보도, 군중문화, 도서관사업 82 체육 83 언어 84 문학 85 예술
총류	90 총류	90 종합성도서

[출처] *남태우, 2000, 80-81. **최영희, 2016, 19-20.

Ⅲ. 〈분류-검색어사전〉의 류문

〈분류-검색어사전(2000)〉의 기본류문(1 준위)은 총 41개이며, 기본류문은 크게 다섯 부문, 즉 혁명 사상과 이론(11/19), 자연과학(20~27), 공업기술 및 응용과학(30~60/69), 사회과학(70~85), 총류(90)로 구분된다. 기본류문의 순서는 맑스-레닌주의 과학 분류 체계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연 과학, 응용 과학, 사회 과학의 순서로 과학지식 류문들을 배열하고 있다.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유심론(唯心論, mentalism) 사상은 배척하고 유물론(唯物論, materialism) 사상을 취하면서 공업기술 및 응용과학을 사회과학보다 상위에 선행시키고 있다(남태우, 2000, 81).

1. 혁명사상과 이론부문

1964년에 발표된 <도서분류표>의 혁명사상과 이론부문은 '11/15 맑스-레닌주의와 김일성동지의 저작'과 '21/23 맑스-레닌주의 당, 조선로동당' 두 류문이다. 중국 역시 '맑스, 레닌 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을 첫 번째인 A에 배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존립 근거를 이들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강미정, 2001, 40-41; 강성윤, 2006, 10; 남태우, 2000, 81).

2000년에 발표된 <분류-검색어사전>에서 혁명사상과 이론부문에는 '11/19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류문 하나만 배치되어 있다. 2014년 개정된 <분류-검색어사전>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외에 김정은이 새로 추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했다. <표 2>는 혁명사상과 이론부문에서 <도서분류표(1964)>의 류문표와 류강표, 그리고 <분류-검색어사전(2000)>의 류문표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표 2> 혁명사상과 이론부문 비교

<도서분류표(1964)>*		<도서분류표(1964)>**		<분류-검색어사전(2000)>***
11/15	맑스-레닌주의, 김일성동지의 저작	111-119	맑스, 엥겔스 저작, 생애	11/19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121-128	레닌, 스탈린 저작, 생애	
		131-133	김일성의 저작 및 활동	
		150-153	맑스-레닌주의 이론	
21/23	맑스-레닌의 당, 조선로동당	210	국제공산주의 운동, 국제로동운동	
		220-229	조선로동당 관련	
		235-238	각국의 공산당 및 로동당	

[출처] *남태우, 2000, 80-81. **강성윤, 2006, 9. ***최영희, 2016, 19-20.

2. 자연과학부문

자연과학 부문은 자연과학 총론을 시작으로 이후에 수학을 배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자연의 객관적 운동 법칙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과학들, 무기 자연계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과학들, 그리고 생명 자연계에 관하여 연구하는 과학들의 순서로 총 8개의 류문들이 전개되고 있다. <도서분류표(1964)>, <분류-검색어사전(2000)>, <분류-검색어사전(2014)> 류문들의 순서와 내용은 1964년 이후 변동된 것이 없다(<표 1> 참조).

3. 응용과학부문

응용과학부문의 류문은 <도서분류표(1964)>에서 21개, <분류-검색어사전(2000)>에서 19개, <분류-검색어사전(2014)>에서 35개로 전개된다. 2014년 개정된 <분류-검색어사전>에서 류문의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경공업(40/43), 농업(50/55), 의학(60/69) 분야에서 늘어난 결과이며, 특히 의학분야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류문의 증가는 해당 부문의 출판물이 여러 도서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해당 기술 부문에 대한 당 정책 강화와 학문적 발전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 3>은 <도서분류표(1964)>, <분류-검색어사전(2000)>, <분류-검색어사전(2014)>의 응용과학부문 류문표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표 3> 공업기술 및 응용과학부문 비교

<도서분류표(1964)>*	<분류-검색어사전(2000)>**	<분류-검색어사전(2014)>***	
40 응용과학 총기	30 공업기술	30 공업기술	
41 공업, 공학 총기	31 컴퓨터, 자동화 기술	31 자동차공학, 계산공학, 컴퓨터	
42 동력 및 전기공업, 동력 및 전기공학	32 에네르기공학	32 에네르기공학	
43 전자 및 자동차 공업, 전자 및 자동차 공학	33 전자공학, 통신공학	33 전자공학, 통신공학	
44 광업, 광업 공학	34 광업, 광업공업	34 광업, 광업공업	
45 금속 공업, 금속 공학	35 금속공업, 금속공학	35 금속공업, 금속공학	
46 기계 공업, 기계 공학	36 기계공업, 기계공학	36 기계공업, 기계공학	
47/48 화학 공업, 화학 공학	37 화학공업, 화학공학	37 화학공업, 화학공학	
	38 원유, 천연가스공업	38 원유, 천연가스공업	
	39 병기공업	39 병기공업	
51 방직 공업, 방직 공학	40/43 경공업	41 방직공업	
53 일용품 생산, 기타 경공업		42 식료공업	
54 인쇄 및 사진 기술 공학		43 일용품 및 기타 경공업	
55 수산업, 수렵업	44 인쇄 및 촬영기술	44 인쇄 및 촬영기술	
56 건설, 건설 공학	45 수산업	45 수산업	
57 운수, 운수 공학	46 건설과학	46 건설과학	
60 농업, 농업과학 총기	47 운수, 운수공학	47 운수, 운수공학	
		48 항공, 우주비행공학	48 항공, 우주공학
		50/55 농업, 농업과학	50 농업, 농업과학총기
			51 영농기술학, 식물보호
			52 농작물
53 원예			
61/62 농산	57 산림학, 립업	54 농업공학	
63 과수 원림		55 축산, 수의, 사냥, 잡업, 양봉	
65/66 축산, 수의		57 산림학, 립업	
49 립업, 목재 가공 공업	60/69 의학	60 의학일반문제 및 보건조직사업	
64 산림업, 산림학		61 예방의학, 위생학	
67/69 보건 의학		62 고려의학	
		63 기초의학	
		64 립상의학	
		65 내과학	
		66 외과학	
		67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중앙학, 이비인후 과학, 신경병학과 정신병학, 안과학, 치과학, 피부병학 및 성병학, 전염병학, 결핵학	
		68 특수의학	
		69 약학	

[출처] *남태우, 2000, 80-81. **강성운, 2006, 9. ***최영희, 2016, 19-20.

4. 사회과학부문

사회과학부문은 사회발전의 법칙에 관한 과학들로부터 사상 및 사회적 의식에 관한 과학들의 순위로 전개된다. 사회과학부문은 1964년 10개 류문에서 2000년 12개 류문으로 늘어났다. 이는 문화·과학·교육과학(80/82), 언어학·문학작품(83/84) 분야의 류문이 세분화되고, 철학(89) 부분이 사회과학총기(70)에 포함된 결과이다. 도서관 및 문헌정보 관련 문헌은 사회과학부문에 포함되며 '81 과학, 교육, 출판보도, 군중문화, 도서관사업'에서 분류된다. <표 4>는 사회과학부문 <도서분류표(1964)>의 류문표와 류강표, 그리고 <분류-검색어사전(2000)>의 류문표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표 4> 사회과학부문 비교

<도서분류표(1964)>*		<도서분류표(1964)>**		<분류-검색어사전(2000)>***	
70	사회과학총기	700-704	사회과학총론, 통계학일반, 인구	70	사회과학총기, 철학
71	역사, 역사과학	710-719	역사일반, 세계사, 조선사, 개별국가역사, 고고학, 민속학, 기타 역사보조과학	71	역사, 역사과학
72	경제, 경제과학	720-728	경제일반, 정치경제학, 부문경제학, 세계경제, 개별국가인민경제	72	경제
73	사회정치생활	730-739	사회정치생활일반, 세계사회 정치생활, 조선 및 각국의 사회정치생활	73	정치
74	국가와 법, 법률과학	740-749	국가와 법 일반 및 이론, 부문법, 각국의 법, 법의학, 범죄수사학	74	법
75	군사, 군사과학	750-759	군사과학일반, 군사학, 개별국가의 군대, 군사보조과학	75	군사
80/82	문화, 과학, 교육과학	800	문화, 문화건설	80	문화, 문화건설
		810-816	과학, 교육과학, 출판, 보도, 서지학	81	과학, 교육, 출판보도, 군중문화, 도서관사업
		820-829	군중문화, 영화, 도서관학, 박물관학, 향토지학, 체육	82	체육
83/84	언어학, 문학작품	830-839	언어학, 조선어, 외국어, 고대어	83	언어
		840-848	문학일반, 조선문학, 개별국가문학	84	문학
85/87	체육, 예술과학	850-858	예술론, 조선예술, 개별국가예술	85	예술
		860-866	조형예술, 건축, 조각, 회화, 무대미술		
		871-875	음악, 악보, 무용, 연극, 영화		
89	철학, 철학과학, 심리학, 종교학, 무신론	890-897	철학, 논리학, 윤리학, 미학, 심리학, 종교	※ 70에 포함됨	

[출처] *남태우, 2000, 80-81. **강성운, 2006, 9. ***최영희, 2016, 19-20.

5. 총류부문

분류표의 제일 마지막은 총류에 해당되는 '90 종합성도서' 류문이다. 문헌 중에는 내용이 하나의 과학지식 부문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백과사전, 조선중앙연감, 조선도서목록 등과

같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부문에 걸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헌들은 하나의 개별과 학에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문헌분류에서는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문헌들을 분류하기 위하여 '종합성도서'라는 류문을 따로 설정하고 있다. 총류부문의 류문표는 앞의 <표 1> 내용과 같다.

IV. <분류-검색어사전>의 구성과 원리

북한은 <도서 및 서지분류표(1996)>에 주제 검색어 사전인 <사회과학검색어사전(1995)>, <표준 실마리어사전(1992)>, <도서관건명표(1990)>의 올림말들을 대응시켜 대조색인형의 통합형 검색어 사전인 <분류-검색어사전>을 2000년에 발표하였다. <분류-검색어사전>은 총 2권 8책(총 8책)으로 구성된다(리철호 외 2001).

1. 제1권의 구성과 원리

제1권 '분류기호-검색어'는 <도서 및 서지 분류표(1996)>에 기초하고 있으며 류문 전개는 총 41개이다. 처음과 마지막인 '혁명사상과 이론', '총류' 부문에 각각 1개씩, '자연과학'에 8개, '공학기술 및 응용과학'에 가장 많은 19개, 그리고 '사회과학' 부문에 12개의 류문을 배정하고 있다.

기본 올림말(표목, heading)은 분류기호이며, 분류항목들이 분류기호 순으로 배열된다. 분류기호는 분류명칭에 대한 상징적인 기호이며 분류체계 안에서 위치와 순서를 나타낸다. <그림 1>의 분류항목은 분류표의 체계를 구성하는 기본단위가 된다. <표 5>에서 '831', '831.1', '831.11' 등은 분류기호이고, '일반언어학', '언어의 구조', '어음론' 등은 분류명칭이다. 결국 분류명칭은 구분단계의 이름이고 분류기호는 이에 대한 상징적인 기호가 된다.

<표 5> 분류기호, 분류명칭

831	일반언어학
831.1	언어의 구조
831.11	어음론
831.111	음소분석(음운론)
831.112	음절구조
831.113	억 양
831.12	어휘론
831.121	일반어휘, 기본어휘, 어휘구성
831.122	학술용어, 전문어

[출처] 최영희, 2016, 22.

<그림 1>은 분류항목의 전체 구성을 보여준다. <그림 1>에서 ① '604.31'은 분류기호이고, ② '병원설비와 시설'은 분류명칭이다. ③ '병원건축은 463.371.7에 분류할 것'은 분류주석이고, ④ '병원-위생설비'는 분류명칭에 대응하는 표준열쇠어 또는 표준열쇠어 결합(즉, 조합)이다. ⑤는 대응열쇠어의 주석을, 그리고 ⑥은 분류항목에 포함되는 표준열쇠어 혹은 표준열쇠어 결합(즉, 조합)을 의미한다(최영희 2017b, 64; 리철호, 오세일 2007, 18).

①604.31 ②병원설비와 시설 ③병원건축은 463.371.7에 분류할 것 ④병원-위생설비 주 : ⑤병원건축은 463.371.1의 대응열쇠어를 이용하여 색인할 것 ⑥검사실; 자체실; 수술실; 입원실

<그림 1> 제1권 '분류기호-검색어'의 일부(최영희, 2016, 20)

북한에서는 나무(tree) 형태의 개념구조를 계단식 분류체계라고 부른다. 계단식 분류체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구분단계를 류문(1 준위)이라고 하며 그 안에 속하는 순차적인 구분단계를 각각 강문(2 준위), 목문(3 준위), 세목문(4 준위)이라 부른다. 문헌분류표는 인류의 사상과 지식을 가장 일반적인 몇 개의 개념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보다 좁은 개념으로 다시 나누기 때문에 1 준위를 뿌리로 하는 나무 형태의 개념구조를 이룬다.

계단식 분류체계에서 구분단계들은 상호 병렬과 종속의 관계로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류문 사이, 강문 사이 등 같은 구분단계에서는 병렬관계가 이루어지며 류문과 강문 등 넓은 개념의 구분단계와 좁은 개념의 구분단계 사이에서는 종속관계가 형성된다.

병렬관계에 있는 구분단계들은 논리적 연관성에 따라 배열되며 종속관계에 있는 구분단계들은 일반적인 것을 앞에 놓고 그 안에 속하는 부분적인 것들은 뒤에 놓는다. 분류표에서 모든 구분단계들은 일반에서 개별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의 원칙에 따라 구성되며 구분단계들은 순차성, 계단성을 띤다(최영희, 2016, 21-22).

<그림 1>의 ③은 분류주석의 예시이다. 분류주석에는 정의 주석, 세분 주석, 모방분류 주석, 교체 주석, 참고 주석, 전문분석 주석으로 구분되고 이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최영희, 2016, 20).

- 정의 주석: 분류항목들의 포괄범위(개념범위, 그 응용범위)를 명백히 밝혀주기 위하여 분류명칭으로 표현되는 개념 외에 더 포함되는 것 혹은 다른 항목에 분류해야 하는 것 등을 규정해주는 주석
- 세분 주석: 각종 보조표에 따라 더 세분할 수 있음을 밝혀주는 주석
- 모방분류 주석: 기본표의 일정한 범위를 모방하여 더 세분할 수 있음을 밝혀주는 주석

- 교체주석: 학문분야에 같은 개념이 둘 이상 포함될 때 어느 한개 분류체계에만 분류되도록 하기 위한 지시사항을 밝혀주는 주석
- 참고주석: 연관된 분류항목을 안내해주어 서로 비교해보고 보다 적합한 분류항목에 분류하여야 함을 밝혀주는 주석
- 전문분석 주석: 전문보조표의 적용범위와 사용방법을 밝혀주는 주석

분류표는 기본분류 외에 문헌의 내용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보조표를 도입하고 있다. 보조표는 기본표의 간결성을 보장하면서도 구분단계에서 문헌들을 일련의 특징에 따라 더욱 세분하기 위한 분류의 보조적 수단이다. 보조표는 크게 공통 보조표와 전문분석 보조표로 나누어 진다(최영희, 2016, 20-21).

공통 보조표는 모든 류문(41개)에 공통적인 측면들을 따로 모아서 반복을 피하고 색인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공통 보조표에는 공통관점 보조표, 세계지리 보조표, 조선지리 보조표, 국제시대 보조표, 조선시대 보조표, 공통시간, 지점보조표가 있다.

- 공통관점 보조표: 모든 과학분야에 공통적인 개념들을 일정한 분류체계로 구성한 표
- 세계지리 보조표: 세계지리적 관점에서 나눈 지역, 나라이름을 묶어놓은 표
- 조선지리 보조표: 북한을 지리적 관점에 따라 나눈 명칭들을 묶어놓은 표
- 국제시대 보조표: 시대구분에 따르는 측면들을 묶어놓은 표
- 조선시대 보조표: 북한의 시대구분에 따르는 측면들을 묶어놓은 표
- 공통시간, 지점 보조표: 시간과 위치를 나타내는 측면들을 묶어놓은 표

전문분석 보조표는 어떤 일정한 류문 내에서 공통적인 측면들을 모아서 반복을 피하고 색인 작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구분기호는 01~08을 사용한다(01 리론; 02 기계 설계, 계산기계, 제도; 03 구조, 부분품, 장치; 04 공업재료; 05 기계제작설비; 06 기계제작기술; 07 설치, 운영과 접수; 08 공장).

2. 제2권의 구성과 원리

제2권 '검색어-분류기호'는 북한의 <사회과학검색어사전(1995)>, <표준실마리아사전(1992)>을 기초로 하고 <도서관건명표(件名表)(1990)>를 참고로 하여 검색어에 해당하는 분류기호를 대응시켜 놓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주제명표목표와 유사하다.

주제명표목표는 자료의 주제나 형식을 나타내는 용어와 그들 간 관계 표기로 구성된 통제어휘

집으로 표준화된 주제의 접근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제명표목표는 종합 백과사전과 같이 모든 분야의 주제어들이 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어 이를 분석하면 관련 주제영역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2권에서 기초로 하는 <사회과학검색어사전(1995)>은 국내 소장기관이 없어 그 실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신순희(2018)의 글에서 <사회과학검색어사전>의 예를 보여주고 있어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다.

<사회과학검색어사전>의 자모순 주제어사전에서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개념(주제어 올림말, 주제명 표목)은 <그림 2>에서와 같은 개념들의 논리적 관계로 표현된다. <그림 2>에서 ‘Ⅲ-01-00, 초흥-01-01’은 범주기호를, ‘ㄷ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과 동의(ㄷ)관계를 나타낸다. ‘ㅌ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의 아래(ㅌ)개념(종개념)에 속하고, ‘ㅍ 속성’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의 웃(ㅍ)개념(류개념)에 속한다.

인간의 본질적 속성	→ 주제어 올림말
Ⅲ-01-00, 초흥-01-01	→ 범주기호
ㄷ 인간의 본성	→ 동의관계
ㅌ 자주성	→ 아래개념(종개념)
창조성	→ 아래개념(종개념)
의식성	→ 아래개념(종개념)
ㅍ 속성	→ 웃개념(류개념)

<그림 2> <사회과학검색어사전>의 예(신순희, 2018, 62)

<표준실마리어사전(1992)>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그 실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라현일, 윤주환(2010)의 2쪽짜리 논문에서 <표준실마리어사전>의 올림말 선정과 관계설정 지원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어, 이 사전의 구성을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다. 라현일과 윤주환의 글에서는 <표준실마리어사전>의 범주, 계층관계, 연관관계의 설정 기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사회과학검색어사전>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건명표목(件名表目, subject headings)에 대한 기록은 <도서분류표(1964)>의 서문에서 “분류표에 대한 건명-자목순 색인은 사정에 의하여 후일에 발간할 것을 예견하고 여기에는 첨부하지 않았다”(국립중앙도서관, 1964, 2; 남태우, 2000, 79)는 기록이 문헌에서 찾은 전부이다. <분류-검색어사전(2000)>에서 참고한 북한 <도서관건명표(1990)>가 우리의 주제명표목표와 유사하다는 것은 유추 가능하나 이것이 초판인지, 개정판인지, 어떠한 특징을 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개념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는 정보조직에서 많이 응용되는데, 특히 분류법에서 기본적으로 응용된다. 개념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는 종속관계, 동일관계, 교차관계, 병렬관계 등이 있다.

종속관계는 한 개념의 외연(外延, 일정한 개념이 적용되는 사물의 전 범위)에 다른 개념의 전체 외연이 포함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외연이 큰 개념을 류개념, 외연이 작은 개념을 종개념이라고 한다. 동일관계는 두 개념이 외연상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조선의 수도'와 '평양'은 동일관계이다. 교차관계는 두 개념들 사이에 외연의 일부분만이 일치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청년'과 '노동자', '기관사'와 '남자'는 교차관계이다. 병렬관계는 같은 류개념에 속하는 여러 종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신순희, 2018, 61).

〈분류-검색어사전〉 제2권 '검색어-분류기호'에서 기본 올림말은 검색어이고 자모순으로 배열되며, 그 밑에는 대응하는 분류기호가 주어진다. 둘 이상의 단어결합으로 이루어진 검색어는 각종 조합기호에 의하여 결합되기도 한다(박철, 2016, 23; 최영희, 2016, 20-21; 2017b, 63-65).

제2권에서는 올림말과 함께 연관이 있는 용어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보여준다. 제2권의 '검색어-분류기호'의 일부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상위어'와 '하위어'는 우리의 '상위어', '하위어'와 용어가 동일하며, 북한의 '련관어'는 우리의 '관련어'와 유사하다. 다만 북한의 '뜻같은말'은 등위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보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USE(비우선어에서 우선어로 참조)를 의미하는지, UF(우선어에서 비우선어로 참조)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표 6〉 제2권 '검색어-분류기호'의 일부

가극극작술	
	분류기호 854.171
	상위어 극작술
	련관어 가극극조직
	뜻같은말 가극극작법
원유가스저장	
	분류기호 386.4
	하위어 가스저장
	원유저장
	련관어 원유가스저장운반

[출처] 최영희, 2016, 21.

분류표와 검색어사전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분류기호와 검색어의 대응규칙이 필요하다. 즉, 기본 주제모임이 같은 분류기호와 검색어 사이에 존재하는 m:n(다대다)의 관계로부터 분류기호와 검색어 사이의 대응을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 분류기호에 대응하는 검색어들은 분류기호의 기본 주제모임과의 관계에 따라 조합관계 또는 포함관계를 가지며, 검색어 모임(집합)에는 표준실마리어(표준검색어)와 자유실마리어(비표준검색어)가 있다. 검색어 사이의 조합관계는 〈표 7〉과 같이 병렬조합, 교차조합, 수식어조합, 제한조합, 치환조합이 성립된다(리철호, 오세일, 2007, 18).

<표 7> 검색어 사이 조합관계의 기호와 의미

관계	기호	설명
병렬 조합	:	자동차와 트랙토르(트랙터) → 자동차;트랙토르(트랙터)
교차 조합	:	물리화학적가공 → 물리적가공;화학적가공
수식어 조합	,	기계식연신기 → 연신기, 기계
제한 조합	-	수학의 력사 → 수학-력사
치환 조합	△	각국의 경제 → 경제, 각국△

[출처] 리철호, 오세일, 2007, 18.

북한의 리철호, 남순녀(2006)는 <분류-검색어사전>을 이용한 주제 분석 작업의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주제 분석을 일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측면 공식’들을 제시하고 있다. 측면 공식은 주제를 나타내는 주제 개념들을 하나의 측면으로 보고 그것들 사이의 배열 순서를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측면에 대한 규정은 지식분야에 따라 변하며 주제색인, 분류색인에 따라라도 달라진다. <표 8>은 주제색인 작업과 분류색인 작업에 이용되는 측면공식들이다(리철호, 남순녀, 2006, 28).

<표 8> 주제색인과 분류색인 작업에 이용되는 측면 공식

	측면 공식
주제색인 작업에 이용되는 측면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대상부분-작용-장소-시간 • 대상-성질-작용-장소-시간 • 대상-작용-작용수단-장소 • 대상-대상부분-과정-성질-조건 • 대상-작용대상-작용수단(인자)-조건 • 대상-작용수단(인자)-성질 • 대상-객체-보조측면-관점측면
분류색인 작업에 이용되는 측면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체-과정 • 사물-부분-재료-작용-시간 • 실체-물질-에네르기[에너지]-공간-시간 • 대상-대상형-대상부분-재료-성질-작용-조건-장소-시간

[출처] 리철호, 남순녀, 2006, 28.

V. 결 론

북한도서관의 문헌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었다. 일찍이 정분희(1993), 한상완(1994)은 ‘표준통일분류표’의 제정을 주장하였고,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2006WLIC) 조직위원회는 2005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에 ‘통일 분류법(목록규칙) 연구 및 제작’을 제안하기도 하였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40). 정연경(2014)은

통일대비 남북도서관계의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 전략에서 ‘한국십진분류법 남북한 통합판 개발’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에서는 ‘도서관 관련 각종 표준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과 ‘남북한 자료공유를 위한 도서관 관련 표준화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는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가 포함되어면서 해당 연구가 실제로 2021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 도서 분류표 개발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261).

이처럼 북한의 도서관 관련 표준화, 그중에서도 문헌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오랫동안 여러 연구자, 현장의 사서, 여러 기관의 보고서 등에서 제기되어 왔었다. 북한의 문헌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며 관련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분류-검색어사전(2000, 2014)>은 분류와 주제색인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분류표이다. <분류-검색어사전>이 편찬됨으로써 북한의 도서관은 표준화가 가능해지고, 컴퓨터망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분류-검색어사전>의 구성과 원리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며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의 문헌분류 체계의 내용을 갱신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본 주제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남북의 자원 공유를 위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통일분류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추후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와의 비교뿐만 아니라 북한 분류체계의 세밀한 분류 규정 및 합성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미정 (2001). 북한의 군중도서관 도서분류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강성윤 (2006). 북한의 학문분류체계. 북한연구학회보, 10(1), 1-24.
- 국립중앙도서관 (1964). 도서분류표(군중도서관용). 평양: 국립중앙도서관.
- 남태우 (2000). 북한의 군중도서관용 ‘도서분류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1), 71-92.
- 라현일, 윤주환 (2010). 표준실마리아사전에 추가할 올림말선택 및 관계설정지원방법에 대한 연구. 정보과학, 37(3), 57-58.
- 리철호 외 (2001). 분류검색어사전 1~8. 평양: 인민대학습당.
- 리철호, 남순녀 (2006). <분류-검색어사전>을 리용한 주제분석작업의 개선에 대한 연구. 정보과학, 2006(4), 27-29.
- 리철호, 오세일 (2007). 모호검색어변환에 기초한 분류-주제통합사전의 개발. 과학원통보, 2007(2), 17-19.

- 박 철 (2016). 해방후 우리 나라 도서분류발전에 대한 연구. 도서관일군 참고자료, 2016(3), 20-23.
- 신순희 (2017). 정보조직에서 개념원리와 그 응용. 도서관일군 참고자료, 2017(4), 22-28.
- 신순희 (2018). 정보조직에서 개념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와 그에 기초한 개념형성의 논리적 수법 응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64(2), 59-64.
- 안혜영 (2016). 완전개가열람에서 표식법에 의한 장서관리의 한가지 방도. 도서관일군 참고자료, 2016(4), 33-37.
- 정분희 (1993).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통독(統獨)전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정연경 (2014). 통일대비 남북도서관계의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 전략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최영희 (2016). 우리 나라 문헌분류표 <분류-검색어사전>의 구성에 대하여. 도서관일군 참고자료, 2016(4), 18-23.
- 최영희 (2017a). 문헌의 발생과 분류력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63(1), 59-62.
- 최영희 (2017b). 우리나라 문헌분류표 <분류-검색어사전>.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63(2), 62-67.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12-1371827-000010-01).
- 한상완 (1994). 도서관 분야의 남북간 상호협력 방안. 도서관문화, 35(1), 4-15.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Heyoung (2016).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books by markings in the complete open shelves. Library Family References, 2016(4), 33-37.
- Choi, Younghee (2016).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the <Classification-Search Term Dictionary> in North Korea. Library Family References, 2016(4), 18-23.
- Choi, Younghee (2017a). Occurrence of literature and history of classification. Kim Il Sung University Journal (Language Literature), 63(1), 59-62.
- Choi, Younghee (2017b). Classification-Search Term Dictionary of North Korea. Kim Il Sung University Journal (Language Literature), 63(2), 62-67.
- Han, Sang-Wan (1994). Cooperation in the library secto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LA Journal, 35(1), 4-15.

- Jeong, Bun-Hee (1993). A Study on a Scheme for Library Cooper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outh Korea.
- Jeong, Yeon-Gyeong (2014). National Library of Korea(NLK)'s Response in Preparation for Library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Kang, Mijeong (2001). A Study on the Library Classification Systems of General Libraries in North Korea.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outh Korea.
- Kang, Sungyoon (2006). North Korea's academic classification system. Journal of the Society for North Korea Research, 10(1), 1-24.
-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2021). A Study on Mid-term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Library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eoul: Presidentia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of Korea(12-1371827-000010-01).
- Lee, Chulho & Nam, Sunnye (200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opical analysis writing using <Classification-Search Term Dictionary>. Information Science, 2006(4), 27-29.
- Lee, Chulho & Oh, Seil (2007). Development of a classification-topic integration dictionary based on ambiguous search term transformation. Notification from the Academy of Sciences, 2007(2), 17-19.
- Lee, Chulho et al. (2001). Classification-Search Term Dictionary 1~8. Pyongyang: People's Grand Study Hall.
- Nam, Tae-Woo (2000). A study on the library classification systems in Nor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1), 71-92.
- National Central Library (1964). Book Classification Schemes. Pyongyang: National Central Library.
- Park, Chul (201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book classification in North Korea after liberation. Library Family References, 2016(3), 20-23.
- Ra, Hyunil & Yoon, Joohwan (2010). A study on the selection of subject heading and supporting relationship establishment of thesaurus. Information Science, 37(3), 57-58.
- Shin, Soonhee (2017). Conceptual principles and their application in information organization. Library Family References, 2017(4), 22-28.
- Shin, Soonhee (2018). The theoretical relationship between concepts in the information organiza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theoretical method of concept formation. Kim Il Sung University Journal (Language Literature), 64(2), 59-64.